

지원회사


Logo

입 사 지 원 자
퍼 블 리 셔 부 문
오 성 의

이 력 서

(희망연봉 : 회사 내규에 따름)

(지원 부문 : 웹 퍼블리셔)

	성 명	오성의	한 자	吳 城 宜
	생년월일	1996년 05월 30일	연 령	만 26세
	E-mail	34715603@naver.com		
	포트폴리오	https://nameose.github.io/portfolio/		
	휴 대 폰	010-9589-5603	비상연락처	010-7537-5603(母)
	주 소	서울시 서초구 방배천로 6길 19		

1. 학력사항

년 / 월	학 교 명	학 과	졸 업 구 분
2015년 03월 ~ 2020년 02월	경기대학교	식품생물공학과	졸업
2012년 03월 ~ 2015년 02월	동덕여자고등학교	문과	졸업

2. 교육사항

년 / 월	교 육 과 정	교 육 기 관	비 고
2022년 06월 ~ 2022년 10월 (760H)	UI/UX 반응형 웹디자인&웹퍼블리셔(디자인 &코딩) 양성과정	그린컴퓨터아카데미 (강남)	수료

3. 직무능력사항

프 로 그 램(사용 언어)	활 용 능 력
포토샵, 일러스트, 피그마	기본적인 툴 사용 및 이미지 보정 작업 가능
HTML	웹 표준과 접근성을 준수하여 사용자의 요구에 맞게 구현 가능
CSS, SCSS	레이아웃을 파악하여 HTML에 적용 가능 Media Query를 이용하여 반응형, 적응형 웹 구현 가능
JavaScript, jQuery	기본 구문과 구조 학습 코드 작성 및 수정, 플러그인 활용 가능
React, Node.js	component 작성 및 적용 가능 포스트맨 사용 가능, 서버 구축 가능
MS Office (워드/엑셀/PowerPoint)	기본적인 문서 작성, 함수 활용, ppt 작성 가능

4. 경력사항

근 무 기 간	회 사 명	직 무
2021년 07월 ~ 2021년 12월	(주)코메드	사무 보조 업무

5. 자격 및 면허취득 사항

취 득 일	자 격 증 명	발 행 기 관
2021년 07월 16일	컴퓨터활용능력 2급	대한상공회의소

자 기 소 개 서

<p>지 원 동 기 및 입 사 후 포 부</p>	<p style="text-align: center;">“ 욕심 있는 신입 ”</p> <p>어느 날, 웹 사이트를 이용하다가 “이 사이트는 이런 점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든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후 진로에 대하여 고민이 많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며 접근하기 쉬운 웹에 관련된 직무가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 후 ‘웹 퍼블리셔’라는 직업을 접하고,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든지 기초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저는 그 길로 웹 디자이너&웹 퍼블리셔 과정을 신청하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p> <p>처음 배우는 디자인과 코딩 공부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생소함 사이에 새로운 것을 배우고 습득하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결과를 도출해 내면 뿌듯했고, 프로젝트를 거쳐 가며 실력이 한 단계씩 향상되어 가는 것이 느껴져 성취감이 들었습니다. 더 잘 하고 싶다는, 성장하고 싶다는 욕심도 생겼습니다. 초반에는 막연히 예쁘고 보기 좋은 웹 사이트를 만들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요소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편의성, 접근성, 유효성 등의 고려해야 할 중요 사항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p> <p>그래서 저는 ‘누구나 이용하기 좋은 웹사이트’를 만들고 싶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000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p> <p>저는 입사 후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역량을 가꾸겠습니다. 첫째, 회사의 체계와 주어진 업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스스로도 주어진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때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업무 습득에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둘째, 꾸준히 발전하는 사원이 되겠습니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익숙함을 멀리하겠습니다. 최신 트렌드를 살피며, 언제나 배우는 자세로 임하여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끊임없는 노력으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욕심 있는 사원이 되겠습니다.</p>
<p>성 장 과 정</p>	<p style="text-align: center;">“ 책임과 성취 ”</p> <p>대학교 1학년 때 전공 수업에서 첫 조별 과제를 받았습니다. 조별로 실험을 진행해서 결과를 내고,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제였습니다. 교차 지원하여 학과 공부가 생소하고 어려웠던 저에게는 조별 과제가 특히나 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원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싫어하는 성격인 탓에 시험 기간일 때보다 더 열심히 준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 달 가량을 수업이 끝나면 실험실로 가서 표본을 확인하고, 교내 도서관에서 빌린 전공 관련 서적 등을 참고하며 실험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는 평가에서 A라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저는 책임감과 더불어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p> <p>추가로 저는 이 조별 활동을 통해서 단체 생활에서의 화합의 중요성도 느꼈습니다. 과제에 대한 저의 부담을 알고 있던 조원 친구들은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이론을 알려주며 보고서 작성에 도움을 주곤 했습니다. 배려가 고마워서 더 열심히 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함께 힘을 낸 덕분에 조의 시너지 효과도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개인의 노력뿐만이 아닌, 조원들 간의 협동이 있었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p>
<p>학 교 생 활</p>	<p style="text-align: center;">“ 가고 싶은 길 ”</p> <p>‘웹 디자인&웹 퍼블리셔’ 과정을 수강하며 HTML, CSS, JavaScript 등의 퍼블리셔로서 기본기</p>

<p>및 교 육 동 활 (경 험 사 항)</p>	<p>를 다질 수 있는 이론들을 배웠습니다. 모두 새로 배우는 언어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렵고 힘도 들었지만, 프로젝트를 해나가면서 점차 익숙해졌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면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재미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p> <p>먼저 HTML과 CSS를 사용하여 각 속성을 이해하며 구조를 만들고, 디자인 요소를 적용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Javascript와 jQuery를 사용하여 동작을 입히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React와 Node.js를 사용해서 서버를 구축하는 법도 터득했습니다. 그 외에 사용한 코드의 작성과 수정, 유효성 검사 활용, 각종 다양한 플러그인들을 적용시키는 법도 습득했습니다.</p> <p>또한,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사용자 요구에 부응하는 웹 서비스를 구현해야 한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귀사에 입사하게 된다면, 사용자가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으며 브랜드의 특성에 맞는 웹 페이지를 제작하고 싶습니다.</p>
<p>성 격 장 점 및 단 점</p>	<p style="text-align: center;">“ 오성의 - 꼼꼼함 = 0 ”</p> <p>저는 꼼꼼한 성격으로 실수 없이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1년 여름부터 겨울까지 '코메드'라는 회사에서 사무보조로 근무했습니다. 파일 등 인쇄물의 분류를 보기 쉽게 잘하고, 수식에 오류가 거의 없다는 점을 좋게 평가받아 주로 서류 정리와 엑셀 작성 업무를 맡았습니다. 직원분들은 제가 놓칠 수 있는 부분도 잘 잡아낸다며 꼼꼼하다고 칭찬해 주셨고, 이런 점을 인정받아 문서의 오탈자 검수와 일정 정리 같은 세심함이 필요한 업무도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헛갈리거나 중요한 것들은 기록해두고 잊지 않도록 자주 체크해서 완성도를 높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사무보조 업무를 했을 때도 해야 할 일, 특별히 중요한 일 등을 기록해 놓아 시간에 맞춰 작업을 끝낼 수 있었고, 업무 규칙을 적어놓은 덕분에 회사 일이 손에 익는 것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하는 끈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편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프로젝트에 투자하며 좋은 결과물을 도출해 내기 위해 힘쓰고는 합니다.</p> <p>반면, 꼼꼼한 일 처리로 인해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저는 이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일의 우선순위를 만들고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였습니다. 중요한 일을 먼저 완료하고, 끝난 일은 지워나가며 남은 일을 차근차근 해나갔더니 이전보다 빠르게 업무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노력하여 업무에 익숙해져서 더 빠르고 정확하게 작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p>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2022 년 10 월 12 일

성 명 : 오성의 (인)